“학교 내 苦 줄이자”…불교교육協 출범

4월 10일 서울서 창립총회
국내 18개 학술단체 참여해
초대회장 박병기 교수 선임
학술대회, 교사연수 등 계획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분야 국내 주요 18개 학술단체들이 4월 10일 한국불교교육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초대 회장에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선임됐다. 사진 제공=한국불교교육협의회

공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불교교육학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연합체가 출범했다.

한국불교교육협의회는 “4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불교 분야 국내 주요 18개 학술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한국불교교육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불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주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한국불교교육협의회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불교교육의 주요 현안과 문제 해결 방안을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회에는 △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성철사상연구원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정각사학술원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사)국제명상상담학회 △(사)한국불교학회 △(사)화엄선연구소 △(사)세계불학원 세계불학연구소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윤리철학교육학회 △태고불교문화학회 △한국선학회 △한국밀교학회 △보조사상연구원이 참여한다.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 후보로 추대된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윤리철학학회장)가 참석 회원 단체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 선임됐으며 수석부회장에는 장환영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장, 사무국장에는 김희강원대 철학실천연구소 부소장이 선출됐다.

박병기 초대 회장은 “현재 학교 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고통 속에 있다”면서 “고통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이야기하는 게 불교다. 학교에 만연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불교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교육협의회는 우리 공교육의 장(場)인 학교에 만연한 고통을 불교적 관점에서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해소책을 마련하고, 교육 전반의 문제를 아우르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임 소감을 전했다.

향후 한국불교교육협의회는 학술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계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교교육 직무연수프로그램과 학교교육의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불교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병기 회장은 “한국불교교육협의회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불교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학술 및 종교, 사회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교와 사회를 잇는 불교교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로 만나는 ‘7일의 왕비’ 단경왕후

회암사지박물관 ‘단단’展
거창신씨대종회 협력으로
전시 통해 왕후 삶 재조명


양주시립회암사지 특별전 ‘단단’에 전시되는 보물 〈온릉봉릉도감의궤〉.

중종의 부인 단경왕후 신 씨는 조선시대 왕비 중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지닌 비운의 왕비다. 중종이 즉위 전 처음 혼인한 정실부인로 매우 현명한 아내였다고 전해진다. 남편 중종과의 부부관계도 매우 좋았으나 중종반정 이후 생이별을 하게 된다.

단경왕후가 폐비가 된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유였다. 고모가 연산군의 정비인 폐비 신 씨였고 아버지 신수근이 폐주 연산군의 처남이어서 역적이 됐기 때문에 반정세력의 요구에 따라 단 7일 만에 폐출당하게 된다.

현명했던 아내와 강제 이혼하게 된 중종은 마음 속으로는 신 씨를 매우 그리워했고, 신 씨가 폐출돼 나와 있던 사가 방향을 자주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신 씨는 중종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빨간 치마를 인왕산 바위에 걸어놓았다. 이 내용은 야사로서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이 되어 전해진다.

신 씨는 ‘폐비 신 씨’로 불리다가 사후 200년이 지난 영조 때에 복위돼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받게 됐고, 양주 장흥에 있던 신 씨의 무덤도 온릉(溫陵)으로 정식 승격됐다.

이처럼 짧았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갔던 왕비 단경왕후의 삶을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는 “4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특별전 ‘단短단端-짧았으나 올발랐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에서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1506년 중종반정이라는 격변 속에서 맞이한 운명의 전환을 조명한다.

이어 폐비 이후 50여 년을 묵묵히 견뎌낸 고독한 삶을 통해 비운으로 기억돼 온 삶 이면의 선택과 결단을 살펴본다.

단경왕후의 후손인 ‘거창신씨대종회’와의 협력으로 준비된 이번 전시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가지정유산 보물인 〈온릉봉릉도감의궤〉, ‘고금동충’ 현액, 〈온릉지〉 등이 전시된다.

온릉을 형상화한 영상 연출을 통해 전시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홍미영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짧은 시간[短] 왕비의 자리에 머물렀으나 묵묵히 바른[端] 삶을 지켜내어 마침내 ‘단경(端敬)’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기억될 한 여인의 삶을 담고 있다”며 “관람객들이 ‘짧음’ 너머에 존재하는 ‘단단한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언어가 개인과 역사를 왜곡시킨다

㊳ 명언종자(名言種子)

名言種子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입 밖으로 흩어지는 순간에도 마음 어딘가에 자취를 남긴다. 불교 유식학은 이를 ‘명언종자’라 부른다. 이름과 말은 씨앗이 되어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고[種子], 적절한 계기를 만나 의지와 행위로 드러난다[現行].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지만, 실은 이미 심어진 언어의 씨앗으로 세계를 해석할 뿐이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 했다. 인간은 언어 속에서 세계를 이해한다. 그러나 그 집은 동시에 시야를 규정하는 틀이기도 하다. 이 통찰은 명언종자의 사유와 깊이 맞닿는다. 유식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가 어떻게 고통과 왜곡을 낳는지를 개인과 사회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한다.

언어의 왜곡은 이미 개인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구조화되어 내면화된 말은 역사 속에서 참혹한 폭력과 살상을 낳아왔다. 몇 개의 단어와 문장만으로도 의식은 오염되고 확장된다. 명언종자는 이 과정을 설명한다. 특정 개념을 담은 말이 의식 깊이 저장되었다가, 상황에 따라 자신과 세계를 향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극단적 사례가 아돌프 히틀러의 선동이다. 그는 ‘아리아인’, ‘순혈’, ‘열등 민족’이라는 언어를 반복해 대중의 무의식에 심었다. 특히 유대인을 ‘사람’이 아닌 ‘해충’이나 ‘바이러스’로 지칭함으로써, “해충은 제거해야 한다”라는 왜곡된 논리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만들었다. 이 언어들은 집단적 명언종자가 되어, 끝내 생명의 존엄을 지워버렸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중국의 홍위병의 광기 또한 다르지 않다.

이 문제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는 이름 속에 갇혀 있다. 이 말들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구도로 환원하고, 이해보다 규정을 앞세운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이름을 보며, 생각을 듣지 않고 진영을 본다. 언어는 빠르게 판단을 낳고, 그 판단은 갈등을 키운다.

이처럼 명언종자는 개인의 의식을 넘어 사회와 역사를 움직인다. 문제는 이 과정을 대중이 지나치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어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것을 객관적 사실로 믿는다.

그렇다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타인의 말을 깊이 숙고하여 분별하고, 걸러내어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리고 이치에 맞고 진실하며 다정한 말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의 한 마디가 의식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며, 역사를 만든다. 언어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낳는 근원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동아시아 밀교사상 면면 살핀다

한국밀교학회, 춘계학술대회
4월 30일 총지종 총지사서

한국밀교학회(회장 정법 정사)는 밀교의례사업단,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총지종 총지사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병욱 중앙승가대 강사는 ‘일행의 대일경에 관한 관점-주심품을 중심으로’를, 손신영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은 ‘사찰의 육자진언’을 발표한다.

김영민 국민대 강사는 ‘신라 중기 밀교 전래 문제와 수용 양상’을, 김수연 이화여대 교수는 ‘고려시대 다라니신앙과 정토신앙의 결합 양상과 의미’를 살핀다.

강향숙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조선시대 의례문헌 밀교개간집을 통해본 조선밀교의 일단(一端)’을,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연구원은 ‘밀교의 일본 전래와 전개-공해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한다.

신중일 기자

걷는 순간이
끈 수행이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